

세계 뇌졸중의 날 연구*:

4 개국(브라질, 아일랜드, 대한민국, 미국) 분석에 근거한 주요 연구 결과
2014/10/17

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뇌졸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하지만, 여성의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다거나 실제로 뇌졸중이 발생하는 확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.

- 각 국가의 응답자 중 약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뇌졸중에 대해 “어느 정도” 또는 “많이” 알고 있다고 응답함(아일랜드 74%, 미국 71%, 한국 58%, 브라질 48%)
- 면담 대상 성인 10 명중 한 명만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(미국 17%, 브라질 13%, 아일랜드 8%, 한국 5%).
- 응답자 5 명중 한 명의 비율로 6 명중 한 명에게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(아일랜드 22%, 미국 18%, 브라질 18%, 한국 17%)
- 여성 5 명중 한 명에게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는 조사 응답자는 6 명 중 1 명 미만으로 나타남(미국 19%, 브라질 16%, 아일랜드 16%, 한국 10%)

일부 응답자들은 고혈압과 흡연이 뇌졸중의 위험 인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당뇨와 체중 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.

- 개방형 질문을 통해 질문할 경우 고혈압과 흡연이 뇌졸중 관련 중요한 위험 인자임을 알고 있는 성인은 4 명중 한 명임
- 당뇨나 과체중이 위험 인자임을 아는 응답자는 10 명중 단 한 명뿐임
- 이와 달리, 9 가지 위험 인자 목록을 제시하면 이들 항목 중 7 가지가 실제 위험 인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할 수 있는 성인은 10 명중 6 명 이상

성인 중 일부는 어눌한 말투, 안면 또는 팔 마비 및 이유 없이 갑작스러운 두통이 뇌졸중의 전조 징후 및 증상임을 알고 있지만, 균형 또는 협응력 상실, 시력 문제나 혼동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

- 5 명중 한 명은 어눌한 말투가 뇌졸중의 지표라고 말할 수 있음
- 약 7 명중 한 명은 무감각/마비와 두통이 전조 징후 또는 증상이라고 응답
- 시력 문제, 균형 문제 및 혼동이 뇌졸중 발생 또는 전조 증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각각 6 퍼센트, 3 퍼센트, 3 퍼센트에 불과함
- 뇌졸중의 5 가지 전조 징후 및 증상 목록을 제시할 경우, 해당 항목 중 뇌졸중의 지표에 해당될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성인은 10 명중 6 명 이상

긍정적인 면으로는 조사 응답자의 대다수가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여 뇌졸중 의심자를 즉시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

- 응답자는 10 명중 약 9 명꼴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여 뇌졸중 의심자를 즉시 병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(브라질 92%, 미국 89%, 아일랜드 89%, 한국 85%)

*본 세계 뇌졸중의 날 연구는 2014년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세계의 네 개 주요 도시(뉴욕, 상파울루, 더블린, 서울)에서 18세 이상의 성인 1,4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(대도시당 350명 이상). 그리고 비교를 위해 2014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각국에 거주하는 성인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. 본 온라인 설문 조사는 코비디엔의 후원으로 국제 여론 조사 기업인 APCO Insight가 실시했습니다. 설문 조사 응답자는 설문 조사 패널로 참가하기로 동의한 사람 중에서 선별했습니다. 데이터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국가나 대도시 지역의 성인 인구 구성을 적절히 반영했습니다.